

중국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 in China

정 군 오* · 이 명 환**

Jung, Kun-Oh · Li, Ming-Huan

■ 목 차 ■

- I. 서 론
- II. 중국의 사회보장지출 구조와 특징
- III.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 IV.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 V.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중국의 2007~2011년 기간 31개 지방(성, 시, 자치구)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각각 추정하여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화율, 실업률, 전년도 지출수준, 조세부담률 등 변수들이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1인당 GRDP는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가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보장 대상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시켜 사회보장지출을 늘리고 농촌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도시화율, 실업률, 조세부담률

*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주저자)

** 호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강사(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3. 9. 1, 심사기간(1,2차): 2013. 9. 1 ~ 2013. 10. 18, 게재확정일: 2013. 10. 18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could affect the level of social security spending, by establishing panel data collected from 31 Chinese local governments (castle, city and autonomous district) from 2007 to 2011, and by assuming fixed effects model and random effects model respectivel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urbanization level, unemployment ratio, Proportion of previous year expenditures, per person and tax burden ratio tends to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mpacts on social security spending. Meanwhile, GRDP representing the income level per person shows statistically negative impacts on social security spending. It is because Chinese social security system is heavily concentrated on labor in urban area, making social security spending irrelevant to income's rising. Therefore, with enhanced social security system, Chinese government requires to extend the object of social security from urban to rural area in order to increase social security spending.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to step up its effort for developing social security program aiming to rural people.

□ Keywords: f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urbanization, unemployment, tax burden ratio

I. 서론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른 성장을 해왔고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 간의 소득격차 또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21세기 초에 이미 국제적 경고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공평성 문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오늘날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鄧旋, 2011). 사회구성원 간의 빈부격차가 너무 크면 오히려 사회경제발전 속도를 저해하게 된다(Deininger and Olinto, 2000). 따라서 효과적으로 도시와 농촌주민들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국이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통해 튼튼한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지출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겠지만 국민들이 지나치게 사회 혹은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¹⁾

합리적인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마다 처한 경제상황과 재정능력이 다르듯이 중국 내의 각 성(省)²⁾들 사이에도 재정능력과 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지출 또한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 혹은 이론들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지출 또는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사회보장지출의 변수들을 주요 요인 변수로 선정하여 중국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 사회보장 재정지출 관련연구에서는 주로 사회보장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분석결과는 양자사이에 양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여러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기존 정군오(외 2명, 2012) 연구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대상이 사회보장 재정지출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중국의 사회보장 재정지출로 한정하여 영향요인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II 장에서는 중국의 사회보장지출 구조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IV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V 장은 결론에 할애한다.

II. 중국의 사회보장지출 구조와 특징

최근 중국의 사회보장체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지출은 주로 사회보장 재정지출과 사회보험기금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 재정지출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지출, 사회보장보조지출, 사회 돌봄 및 사회구조 지출 등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중국 정부의 신정부 재정수

1)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수준은 사회보장 지출을 함에 있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또 사회의 공평과 경제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2) 중국의 행정구역 구분은 크게 22개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로 구분되고 모두 성(省)급 지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省), 자치구(自治區)는 다시 자치주(自治州), 현(縣), 자치현(自治縣), 시(市)로 구분되고 직할시(直轄市)는 다시 구(區)와 현(縣)으로 구분된다.

입지출 항목분류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지출내용과 기타 지출을 합병하여 사회보장 및 취업지출로 재분류되었다.³⁾ 사회보험지출은 주요하게 5개 부류로 구성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양로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장(산재)과 생육(출산)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총 합산한 지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에 대한 행위 주체로서 재정에 관련된 사회보장지출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2007년 이후 중국 통계청에서 재분류된 사회보장 및 취업을 사회보장 재정지출 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중국의 총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회보장 지출과 재정사회보장지출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 재정지출 대비 재정사회보장지출인 경우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만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하락하거나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보조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은 오히려 높은 증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사회보장지출 중에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보조 지출이 포함되는데 이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보조지출은 중앙재정의 전략적 준비기금으로서 아직까지 진정한 사회보장지출의 성격은 지니고 있지 않다. 즉 2003년도의 재정지출대비 재정사회보장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한 것은 전국 사회보장기금의 보조 지출이 2000~2002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을 제외하고는 사회보장 재정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높은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보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분배제도의 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결과 중국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분배구조의 불합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부문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이원구조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표 2〉는 중국의 최저소득보장과 사회구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서 2006년 까지 도시의 최저소득보장은 절대적인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에서도 농촌보다 더 크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절대적인 규모나 상대적인 규모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농촌의 최저소득보장규모가 도시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2006년 중국통계청은 재정부문에서 여러 항목들을 통합 또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2007년부터 재정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지출과 취업” 항목이 생겨났다. “의료보건지출”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국가통계연보 2007을 참조 바란다.

4) 楊燦明, 2010, 中國城鄉居民收入的決定因素分析, 當代經濟.

〈표 1〉 1999~2011년 총 사회보장지출 수준

(단위: 억 위안)

년도	재정사회보장 지출	사회보험기금 지출	총 사회보장 지출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총 재정지출 대비 재정사회보장지출 비중
1999	1197.44	2108.1	3305.54	3.69%	9.08%
2000	1517.57	2385.6	3903.17	3.93%	9.55%
2001	1987.40	2748	4735.40	4.32%	10.51%
2002	2636.22	3471.5	6107.72	5.08%	11.95%
2003	2655.91	4016.4	6672.31	4.91%	10.77%
2004	3116.08	4627.4	7743.48	4.84%	10.94%
2005	3698.86	5400.8	9099.66	4.92%	10.90%
2006	4361.78	6477.4	10839.18	5.01%	10.79%
2007	5447.16	7887.8	13334.96	5.02%	10.94%
2008	6804.29	9925.1	16729.39	5.33%	10.87%
2009	7606.68	12302.6	19909.28	5.84%	9.97%
2010	9130.62	14818.5	23949.12	5.96%	10.16%
2011	11109.4	18054.6	29164.00	6.16%	10.17%

자료: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에서 재정리

〈표 3〉은 중국의 도시와 농촌 사회기본 양로보험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9~2007년 기간 동안 농촌 양로보험가입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부터는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도시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 가입자 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09년도 도시 양로보험 보급률은 38.47%이지만 농촌 보급률은 10.07%에 달해 그 격차는 매우 크다. 특히 2000년 농촌가입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1999년 7월 국무원에서 농촌은 아직 사회보험을 보편화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 업무에 대해 정리 및 정지하고 새로운 업무접수를 정지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최저소득보장과 사회구조 현황

(단위: 만 명)

년도	도시			농촌		
	인구	최저소득 보장 인구	비율	인구	최저소득 보장 인구	비율
1999	43748	265.9	0.61%	82038	265.8	0.32%
2000	45906	402.6	0.88%	80837	300.2	0.37%
2001	48064	1170.7	2.44%	79563	304.6	0.38%
2002	50212	2064.7	4.11%	78241	407.8	0.52%
2003	52376	2246.8	4.29%	76851	367.1	0.48%
2004	54283	2205	4.06%	75705	488	0.64%
2005	56212	2234.2	3.97%	74544	825	1.11%
2006	58288	2240.1	3.84%	73160	1593.1	2.18%
2007	60633	2272.1	3.75%	71496	3566.3	4.99%
2008	62403	2334.8	3.74%	70399	4305.5	6.12%
2009	64512	2345.6	3.64%	68938	4760	6.90%
2010	66978	2310.5	3.45%	67113	5214	7.77%
2011	69079	2276.8	3.30%	65656	5305.7	8.08%

자료: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에서 재정리

이밖에도 중국의 사회보장지출 구조는 중앙재정사회보장지출이 지방지출보다 현저히 낮다는데 있다. 현재 중국은 5등급 정부체제를 실행하고 있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록 헌법의 원칙상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책기능 범위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각급정부의 명확한 직권배치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하급정부에게 맡기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급정부에서 순차적으로 하급정부의 지출구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직책이 하위 정부 층으로 이동하게 되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도 하위 층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가장 많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 사회보장지출은 지방지출보다 현저히 낮고 6%전후의 수준에 그쳐 대부분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지출을 부담하고 있다. 많은 선진 국가들의 소득재분배적 사회보장기능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중국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도시와 농촌의 사회 기본양로보험 현황

(단위: 만명, 억 위안)

년도	도시			농촌		
	양로보험 가입자 수	도시인구대 비 비중	양로보험기금 누계 잔액	양로보험 가입자 수	농촌인구대 비 비중	양로보험기금 누계 잔액
1999	12485.4	28.54	733.5	8000.0	9.75	-
2000	13617.4	29.66	947.1	6172.0	7.64	195.5
2001	14182.5	29.51	1054.1	5995.1	7.54	216.1
2002	14736.6	29.35	1608.0	5462.0	6.98	233
2003	15506.7	29.61	2206.5	5428.0	7.06	259.3
2004	16352.9	30.13	2975.0	5378.0	7.10	285.0
2005	17487.9	31.11	4041.0	5442.0	7.30	310.0
2006	18766.3	32.52	5488.9	5373.7	7.29	354.0
2007	20136.9	33.91	7391.4	5171.5	7.11	412.0
2008	21891.1	36.08	9931.0	5595.1	7.76	499.0
2009	23549.9	38.47	12526.1	7277.3	10.07	-

자료: 노동과 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勞動和社會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에서 재정리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최근에 들어서야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서 사회보장에 많은 투입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아 늘어나는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회보장재정지출예산을 예측하고 편성하여 날로 늘어나는 중국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

(단위: 억 위안)

년도	중앙 사회보장지출		지방 사회보장지출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2007	342.63	6.29%	5104.53	93.71%
2008	344.28	5.06%	6460.01	94.94%
2009	454.37	5.47%	7851.854	94.53%
2010	450.3	4.93%	8680.32	95.07%
2011	502.48	4.52%	10606.92	95.48%

자료: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에서 재정리

Ⅲ.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재정학자 및 경제학자, 그리고 일부 정치·행정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지재정지출 확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론적 시각으로 주로 실증적, 계량적 연구 방법에 의한 복지정책을 사례로 연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론적 시각으로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역사적, 경험적 분석 방법을 통한 복지지출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다.(김교성, 이재완, 2000) 이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정지출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경제적 이론, 점증주의 이론, 재정능력이론 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요인 이론은 Wagner에 의해 국가의 재정팽창에 소득, 인구, 산업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후 주로 재정학자,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이론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경제적 결정론은 정부의 재정지출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 중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보다 더 강조하여 기존의 체제이론과의 이론적 틀을 달리한다. 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로는 인구수와 인구밀도 같은 인구변수 외에도 도시

화, 산업화,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변수로 사용된다.

결정요인이론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반면, 점증주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체제내의 예산결정과정참여자의 의사결정행태를 설명한다.(김진아.2001; 장혜운.2009) 점증주의 대표적인 학자는 Lindblom(1979)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책이 점증적으로 결정되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처방적-규범적 이론으로서 점증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들은 문제의 복잡성과 분석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며 포괄적인 분석보다는 기존의 정책에 약간의 변화를 가한 소수의 정책만 고려하게 된다. 점증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산출물에서의 소규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변화도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능력이론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 재정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지출과 정부세입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Musgrave(1969)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정능력이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존도가 높아 지방정부가 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고, 반대로 재정능력이 높은 지역은 경제개발에 치중하게 되므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eterson(1981)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재정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에 투입할 재원도 제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예산결정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박고운, 박병현, 2007)

이밖에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희준(1999)은 15개 시·도의 1인당 세출총액규모와 기능별 세부 지출(1인당 일반행정지출, 사회복지지출, 지역발전지출)에 지방자치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수(1인당 주민소득, 인구밀도), 정치적 변수(투표율), 점증적 변수(전년도 지출), 재정능력변수(1인당 지방세부담액)등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체의 도입이 지방재정지출규모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았고, 지역발전 지출 수준을 감소시킨 반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하여 점증적 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보조금액의 수준도 비교적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함우식(2007)은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정치적인 요인, 경제적 요인, 재정적요인, 사회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해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정수지차이 변화율, 국내총생산 변화율, 조세부담율의 변화율, 인구성장률 변화율, 실업율의 변화율, 도시화의 변화율 등 순서로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정군오(외 2명, 2011)는 중국의 31개 지방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1인당 GDP, 인구, 실업률, 인구밀도, 서비스산업

비중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개방도를 나타내는 무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이 점진적인 시장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趙蔚蔚·楊慶運(2011)은 중국의 사회보장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양자사이에는 장기관계인 공적분관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보장지출의 결정요인 탐색

본 연구는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요인, 짐증주의 요인, 재정적요인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선정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지역내 총생산(GRDP), 인구규모(POP), 실업률(UPL), 도시화율(UBR) 변수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증가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늘릴 수 있어 사회보장지출을 늘리게 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는 개인에게 있어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예상 할 수 있다.(함우식, 2007) 그러나 경제가 호황기에 이르게 되면 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은 감소해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지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을 때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보장 지출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소득의 변화는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국민소득은 생산의 범위나 평가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과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각 지방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을 변수로 설정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인구규모에 대한 변수는 Wagner(1863)의 연구결과 이후 많은 재정지출관련 선행연구들이 사회 경제적 요인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수와 인구밀도의 증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더 큰 행정수요를 파생시키고 지방재정의 세입측면에서도 과세를 위한 세원확

충으로 이어져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 즉 인구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른 환경문제, 주택문제, 범죄발생, 빈부격차 등 복잡한 사회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여 일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인구규모의 증가는 정부의 사회보장재정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13억이 넘는 거대 인구가 있으며 인구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는 점과 사회보장범위에 속하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인구수의 증가는 사회보장지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중국 정부가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보장범위를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전체 인구 대비 지방인구 비중을 변수로 선정하여 인구규모가 사회보장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실업률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주민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혹은 소비자극 정책들과 맞물려 실업률 상승에 대한 억제와 함께 각종 실업수당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래 중국은 사회경제체제 개혁을 실행함에 따라 농촌의 남은 인력들이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고 또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아 퇴직자와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주민의 실업보수당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방의 도시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사회보장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도시화문제는 도시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주택, 도시 인프라, 교통, 환경오염, 보건의료 등 문제는 아주 이질적이고 다양하다.(표갑수, 2006) 또한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될수록 생활양식의 변화가 수반되어 행정수요에 대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공공지출이 증가하게 된다.(장혜윤, 2009) 일반적으로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탈바꿈 되는 도시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투자를 증가시킨다고 한다.(김안제, 1979) 본 연구는 각 지방의 도시인구 비중을 도시화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2) 점증주의 요인

본 연구는 전년도 GDP대비 사회보장지출비중을 점증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점증주의는 재정지출 결정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한정된 몇 개의 요소만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특정연도의 예산은 여러 조건을 고려되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예산결정자의 인지 능력 한계와 예산참여자들의 타협과 조정 등

과정을 거쳐 전년도 예산이 기초가 되어 소폭의 증감만 이뤄진 채로 예산이 배분된다고 가정한다. 1인당 전년도 지출액 변수는 이미 국내의 선행연구들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변수로써 재정지출에 가장 유의한 변수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성중, 신주연, 2003)

3) 재정 및 제도적 요인

조세 부담률은 조세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 부담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조세수입은 총 재정수입의 90%좌우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수입의 가장 주요한 원천이다.⁵⁾ 또한 주민의 조세부담은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사회보장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조세수입대비 국민총생산 비중을 조세부담률의 변수로 선정하여 사회보장재정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한다.

<표 5> 변수들의 해석 및 기초통계량⁶⁾

변수	해석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극대 값	극소 값
SPE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0.028736	0.02654	0.018253	0.140326	0.005758
GRDP	1인당 GRDP(위안)	3.012266	2.4719	1.755430	8.5213	0.7273
POP	총 인구 대비 지방인구(%)	0.03198	0.027928	0.020297	0.077968	0.002172
UBR	지방인구 대비 도시인구(%)	49.20484	46.05	14.64919	89.3	22.61
UPL	실업률(%)	3.654902	3.8	0.595702	4.6	1.4
QEN	전년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위안)	0.028421	0.026697	0.017716	0.140326	0.005758
CFQ	총 재정지출 대비 지방재정지출(%)	0.025987	0.024137	0.013275	0.063469	0.004858
SFD	GNP대비 조세수입(%)	0.071607	0.065555	0.027887	0.175649	0.03417
관측치 수		155				

자료 출처: 중국국가통계국(中國國家統計局), 2012

5) 중국의 조세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관세, 농업세와 축산세 및 경지점용세 등이 포함된다. (중국국가통계청 2012)

6)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Eview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요인 변수인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정보에 대한 우위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편향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분권화 정도가 높을수록 재정지출을 함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Hayek, 1945)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총 재정지출대비 지방재정지출 비중을 재정분권화의 변수로 선정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재정분권화의 지표로 지출비중과 수입비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출비중, 즉 지방재정지출이 국가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한다.⁷⁾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값은 <표 5>와 같다.

3. 모형 설정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지출 결정요인에 대해 사회경제적 요인, 점증주의 요인, 재정 및 제도적요인 등을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식 (1)과 같다.

$$SPE_{it} = \alpha_0 + \alpha_1 GRDP_{it} + \alpha_2 POP_{it} + \alpha_3 UPR_{it} + \alpha_4 UPL_{it} + QEN_{it} + CFQ_{it} + SFD_{it} + \epsilon_{it} \quad (1)$$

식 (1)에서 i 는 지역, t 는 연도, α_0 는 상수항⁸⁾, α_j (1, 2, ..., 6)는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ϵ_{it} 는 오차 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후의 분석은 변수들의 원래 값에 근거하기 보다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한다. 이것은 탄력성 계산의 용이함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취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1년 기간 중국의 31개 지방(省)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각각 추정하여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때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Hausman 테스트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7) 成剛, 蕭今 (2011)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지표를 지방지출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지방수입비중도 함께 고려하여 재정분권화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8) pooled 모형에서는 상수항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고정효과모형 혹은 확률효과모형을 추정 시 상수항은 개체에 따라 변화된다고 가정한다.

로 개별적인 고유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OLS추정량은 비효율적인 추정량이 되며, 일치성 역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별 지역의 고유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추정방정식의 계수는 모든 지역과 모든 기간에 걸쳐 동일하지만 상수항이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은 GLS추정량으로 개별 지역의 효과를 나타내고 오차 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을 때 적합하며 일치추정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특정 효과가 존재하고 오차 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확률효과모형 하에서 추정된 계수는 불일치성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설명변수와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Hausman test를 통해 가능하다. Hausman test는 개별 대상의 오차 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검증이 이루어진다. 만일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 고정효과모형의 OLS추정계수와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GLS추정계수 모두 일치성이 있다. 그러나 대립가설 하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OLS는 일치성이 있으나 GLS는 일치성이 없게 된다. 따라서 Hausman 검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IV.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 점증주의 요인, 재정 및 제도적 요인들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재정분권화(CFQ)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랜덤효과 모형에서는 도시화율(UBR)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 사회보장재정지출에 대한 고정효과 및 확률효과 모형 추정 결과

Variable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GRDP	-0.663132 (-3.140552)***	-0.220684 (-2.354932)**
POP	0.832441 (3.230524)***	-0.158476 (-4.356909)***
UBR	1.541729 (2.954152)***	-0.022708 (-0.138028)

Variable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UPL	0.272708 (2.176202)**	0.047711 (2.291635)**
QEN	0.259797 (2.245172)**	0.836376 (13.19691)***
CFQ	0.120963 (0.418606)	0.117673 (5.476487)***
SFD	0.898308 (5.304628)***	0.070153 (2.227828)**
C	-1.052373 (-3.476001)***	-0.104546 (-0.370824)
R^2	0.980676	0.962770
Hausman 검정 (Chi-Sq. Statistic)	-	40.633356***
총 표본 수	155	155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t값을 의미하며 이는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됨.

2. ***, **은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추정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GRDP인 경우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화율(UBR)인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률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인구변수도 (POP)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모형추정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모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 논의도 달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한 연구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우스만 검정에서 오차 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에 근거한 추정결과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결과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우선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RDP는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소득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을 -0.9493정도 자극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의 증가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의 증가는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가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도시화수준을 나타내는 UBR은 사회보장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계수 또한 1.5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로 해석이 된다. 또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시노동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인구규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사회보장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계수도 0.832로 비교적 크다. 인구규모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행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나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 안전문제, 빈부격차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보장 재정지출수준이 늘어나게 된다.

도시 실업률 또한 사회보장재정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실업수당과 같은 최저생활보장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시장화개혁은 높은 효율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실업이라는 위협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장경제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경제주체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되어 기업인원 감축 혹은 퇴직과 같은 실업은 매우 일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점증주의 요인으로 전년도 GDP대비 사회보장재정지출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점증주의 이론과 잘 부합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인 요인으로 조세부담률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계수는 0.898로 도시화를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조세부담정도가 커지면 정부로 하여금 재정수입을 더 많이 확보하여 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재정 분권화의 지표로 총 재정지출 대비 지방재정지출 비중은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추정계수도 0.121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한계점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를 통해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은 사회보장지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미래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키워줌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등 소비지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지출 수준의 적절한 수준은 중국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득격차를 줄여 사회의 균형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보장 지출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의 2007~2011년 기간 31개 지방(성, 시, 자치구)자료를 이며 이를 패널자료로 구축하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각각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고려하여 t-값들은 White의 방법을 이용한 수정된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의 적합성을 보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성을 보기 위한 하우스만(Hausman) 테스트 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1인 GRDP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수준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선진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사회보장재정지출수준이 확대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추가로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자면,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증가속도가 GDP증가 속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의 기존 성장노선은 경제성장에만 급급하고 분배측면에서는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발전전략이 기존의 높은 경제성장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향후는 사회보장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보장 대상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대폭 확대시켜 사회

보장지출수준을 확대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최근 들어서 농촌현대사회보장제도가 가동되면서 농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탐색작업들이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보장방안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둘째: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UBR은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양(+)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이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규모와 도시 실업률도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점증주의 이론에 입각한 전년도 GDP대비 사회보장 재정지출비중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부담률인 경우는 추정 계수가 0.8591로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민들의 조세부담정도가 커지면 정부로 하여금 재정수입을 더 많이 확보해 필요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재정분권화의 지표로 총 재정지출 대비 지방재정지출 비중은 사회보장지출에 양(+)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분석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시기를 2007년도 전후를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분석모형에 있어서 정치·행정적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또한 한계점으로 남긴다. 향후 중국의 31개 지방을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사회보장지출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혜규. (2005).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교성·이재완. (2000).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68-92.
- 김미혜·정진경. (2003). 한국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19(1): 1-21.
- 김성종·신주연. (2003).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14: 3-23.
- 김안제. 1979. 농촌·도시변환과정과 지성개발정책: 서울·경기수도권을 중심으로. 『환경논집』, 6: 1-28.
- 김진아. (2001)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고운·박병현. (2007).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423-451.
- 서상범. (201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 손희준. (199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회』, 33(1): 81-97.
- 신용무. (201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희선·이동영. (2004). 사회복지비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2): 152-173.
- 장혜윤. (2009). 『중앙정부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군오·이명환·임응순. (2012). 중국 지방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3): 267-285.
- 표갑수. (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 함우식. (2007). 한국 경찰예산과 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1(2): 329-362.
- Deininger, Klaus and Olinto Pedro. (2000). 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Lindblom, Charles E. (1979).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6).

Hayek, F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XXXV(4): 519-530.

鄧旋. (2011). 財政支出規模, 結構与城鄉收入不平等: 基于中國省級面板數據的實証分析, 『經濟評論』, 4(4).

趙蔚蔚·楊慶運. (2011). 我國社會保障支出和經濟增長的關係研究: 基于公共財政視角.